타인에게 다정한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

이성 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차갑거나, 어둡거나, 상처가 있거나, 냉정한 이성과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짝남이 너무 '철벽남' 이다." 라는 고민을 하는 여성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더 어렵다.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기도 어렵고, 이성적으로 인연을 맺기는 더 힘들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에게 다정다감한 사람만큼 대하기 편안한 부류가 없다. 일정 부분까지는 친해지기가 쉽다. 상대방의 친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그 이상의 선을 넘기가, 다시 말해 진짜 그 사람의 인연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어느새 저 뒤로 떨어진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성을 함부로 사귀지 않는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어장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실망스러운 면모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당신에게 보이는 친절은 전부 진심이다. 그 진심 어린 다정함에 당신은 넋을 잃는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어장 속으로 들어가길 망설이지 않는다.

그의 어장 속에서는 실망할 일이 없으니 자진해서 들어온 어장에서 헤엄쳐 나갈 구실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아쉬움은 생긴다. '나에게만 조금 더 특별해 주었으면' 하는 갈망이 깊어진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자신이 그랬던 만큼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얻는 상대방은 당연히 스스로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자존감이 높은 만큼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에 목말라하지도 않는다. 천성적으로 적을 만들기 싫어하는 성격이므로 상냥하게 대하지만, 자기를 깊이 알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실망할 일이 없어 그이 어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럴수록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그의 애정을 탐하는 마음은 깊어만 간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짝사랑을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언제나 아련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여우짓하기는 뻘쭘해서 싫다. 더구나 그에게 여우짓하며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싶어진다. 그래도 그를 포기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고백을 하자니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혼자 하는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계속 아픔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신만의 사랑이고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집착이 된다. 고백하고 정리해야 한다.

고백 후 연인으로 발전하든, 그렇지 않든 확률은 각각 50%. 고백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놓치게 된다.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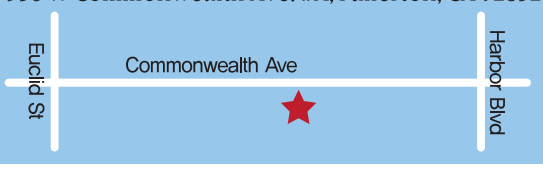
PATIENTS' CHOICE AWARD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내과 · 노인과 전문병원

이광혁 내과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지정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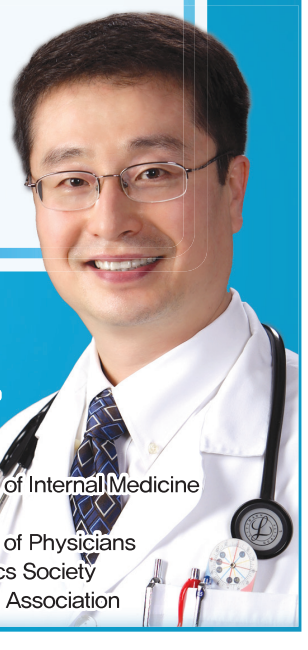
건강 검진 스페샬

$99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췌장효소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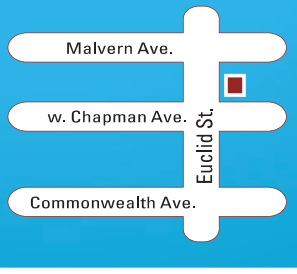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Bilirubin, Nitrite, WBC
RBC,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진료시간 : 9am-6pm(월화목금), 9am-1pm(수·토)

각종보험, 메디케어, PPO, HMO 받습니다.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ohn K. Lee, M.D.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 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